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49호 수덕사대웅전



수덕사 버선꽃

최문자

꽃 안에 접이 있다
가던 길 멈추고
사랑을 물을 수 있다는 버선꽃이 있기에
덕승남자가 되어 수덕사로 갔다
뽀얀 흰 버선 한 짝 신고
수덕도령 만나러 갔다
언제나
사냥터 먼 말치서 바라보던 수덕도령에게 잡혀
벗겨진 버선 한 짝
평생을
버선 한 짝 신고 살았을 덕승남자
평생을
버선 한 짝 끼고 살았을 수덕도령
잔불 끄지 못하고 몇 번이나 지은 절 불래울 때
반짝이는 별이 물었다
버선 한 짝의 사랑을 물었다
수덕사 대웅전 추대 위를 오르며
층계 중간쯤 서서 보았다
노랗게 버린 버선꽃
버선 한 짝씩 나눠 가진
다 타버린 사랑의 자리
그 꽃이 있던 그 자리가 수덕사냐고
오랜 뒤
덕승남자가 되어
수덕사에게 물었다
평생 한쪽 발이 시렸을
사랑을 물었다
아직도 한쪽 맨발로 노랗게 서 있는
꽃 안의 절에게 물었다
한 슬픔이 가을풍 내민 얼굴 버선꽃과
하루종일 놀았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최문자 시인은... 서울 출생. 198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울음소리 작아지다〉, 〈그녀는 믿는 버릇이 있다〉 등.

“현대적 청구보다 ‘수행자’ 의식 앞서야”

조계종교육원, 종단 청구제정 위한 좌담회 개최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 중 하나인 현대적 청구 제정을 위한 첫 논의가 이뤄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26일 ‘종단 청구 제정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현대적 청구의 방향성과 범주에 대해 논의했다.

조계종 교수 아사리 자현 스님(월정사 교무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 청구 제정의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 제안했다.

스님은 먼저 현대사회는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측면에 대한 검증도 중요한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현 스님은 “개인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집단 개인에 대한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청구 제정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청구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구 제정의 범위로는 사회적인 부분과 의식주, 개인을 꼽았다. 특히 개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려 개인의 성숙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현 스님은 “수행자는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계몽의 요청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집단 전체가 상향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종교 특수성 아울러야

스님들 제정 취지에는 공감

세부 항목 정해 울장 비교

계율교육·자자 등 의견 제시

발제 이후 이어진 좌담에서는 현대적 청구 제정에 대한 울사 스님들의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스님들은 울장에 대한 위치를 강조했다.

조계종 교수 아사리 적멸 스님은 “부처님 계율은 아무 문제가 없다. 모든 것은 우리 승가가 계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현대사회에서 부적합한 것은 개선해야 하지만 울장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6월 26일 종단청구제정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현대적 청구의 방향성과 범주에 대해 논의했다.

승가의 의식 개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광사 울원장 도일 스님은 “스님들이 계는 받지만 지키는 않는다. 모든 것이 개인의 의식 문제”라며 “아무리 청규를 제정하더라도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교수 아사리 벽공 스님도 “승가 내 ‘자자’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청구 제정을 놓고 난상토론을 펼친 이날 좌담회는 종법으로서의 청규를 입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를 논의할 중앙종회 조직이 없어 구성 전까지 종헌개정및 종법제정특별위원회에서 청구 제정 전반을 담당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2013년 장학금 선발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는 6월 22일 ‘제7차 장학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기 2557(2013)년도 종단 장학금 선발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종단 장학금 선발에 특징은 종단 연구발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 장학위원회는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계율 △한국 근현대 불교사 등 9개 전

문 분야에 걸쳐 종단 장학금을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현재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학인 스님들로, 구체적인 수칙과 고졸전형 등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013년도 종단 장학금 선발 접수는 10월 8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의 접수기간을 거쳐, 11월 최종 심사 후 12월 중 선발을 확정하게 된다. 신종일 기자

진각종, 진각논문대상 논문 7편 선정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이 제14회 진각논문대상 불교일반(5편), 밀교일반(1편), 진각종교학(1편) 등 3개 분야에서 총 7편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당선된 논문계획서와 연구자는 불교일반분야에서 △재가자의 아라한 성취와 재가생활유지 가능성에 대한 고찰-Pali문헌을 중심으로(서현희 서울불교대학원대 강사), 육망의 주체에 의한 ‘심상(心像, samjna)’의 언어화(안한기 불교학연구회 편집간사) 등이다.

논문계획서 당선자들은 향후 4개월 간

논문 완성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논문 발표회를 갖고 최우수편을 가리게 된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바로 잡습니다〉

제 894호 16면 ‘나의서원 나의신행’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기사에서 중간 제목 1988년 대원불교법사회 창립을 대한불교법사회 창립으로 바로잡습니다.

대선 잠룡들 ‘佛心잡기’ 시작

손학규·정세균 민주당 통합당 고문, 자승 스님 예방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당 합당 상임 고문이 6월 28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대선 주자 중 첫 예방이다.

손 상임고문은 “어제 출마를 선언하고 종단에 처음으로 보고를 하려고 왔다”며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자승스님은 “손 고문은 절집에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스님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27일에는 출마 후보 중 한 명인 정세균 민주당 합당 상임고문이 조계종 원로 의원 도문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정 상임고문은 “용성 조사의 유훈을 받들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도문스님은 “이 나라,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6월 28일 예방한 손학규 민주당 합당 상임고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흥 산 현 불 총무원장 자 랑

입종안내

◆ 입종구비서류

- 승려, 법사, 사암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증 앞 뒤 복사 1통
- 사암 사진 (안·밖)

- 총본산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 수월사
- 종정스님 주석 사찰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 관음사
- 총무원 : 전화 063)583-8807 / 팩스 063-584-4153 / Mobile 010)6478-1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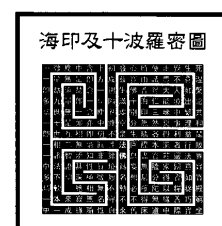
종정 큰스님의 법성계 친필휘호 보급 안내

〈족자〉

사업장이나 집안에 법성계를 걸어두고 해인도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체만법이 성취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며 일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 스님의 달마도가 들어 있는 법성계 휘호는 신묘한 기가 있습니다.

※ 달마도도 보급합니다.

- 보급가 15만원
- 계좌 : 농협 351-0247-1334-03 (예금주: 우리불교조계종)
- H·P 010-6478-1569



해인도 10.5×17.5cm



법성계 38×145cm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